

# 고흥군, '제1회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고흥군이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JTBC가 후원하는 '제1회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했다.

## 사람이 돌아오는 '귀농귀촌 선도 도시 부문' 선정 전국 최초 지자체 직접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소

상' 귀농귀촌 선도도시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흥군은 민선7기 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촌(귀농·귀어) 등 인구정책 3대 전략, 9개 과제, 50개 시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귀농·귀촌·귀향인구 4,804명(1개면 규모)이 고흥으로 전입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를,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 2019년에는 전국 1위, 2020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인구증가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지역재생산지수' 전국 4위를 기록함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의 청신호를 밝혔다. 흥군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현장체험실습을 하고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내사랑 고흥기금' 100여원을 조성 목표로 이미 90여원을 확보

하여 귀향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자금,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귀농·귀어 창업자금과 살터기반 지원을 해줌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유지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영천리 농업유산마을서 '소박한 차꽃축제' 개최

### 차꽃 담근 사진 한 컷 '전국 차꽃사진 콘테스트' 진행

녹차수도 보성에서 오는 28일 한해 차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13회 소박한 차꽃축제'가 열린다. '제13회 소박한 차꽃축제'는 영천리 자율주민공동체(대표 김경욱)와 전남차연구회(대표 조현곤)가 주관하며 영천마을 소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차꽃을 활용한 차꽃주 만들기, 차꽃차 시음, 떡차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코로나19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전국 차꽃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전국 차꽃사진 콘테스트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차꽃을 주제로 한 인생샷, 차꽃이 피어있는 차밭, 차꽃을 활용한 공예품 또는 음식 사진 등 차꽃을 활용해 만든 모든 이미지와 주제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보성전통차농업 홈페이지(http://www.bste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22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성군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하여 10월 26일(화) 발표할 계획이다.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의 수

상자에게는 시상금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수여하고 모든 수상작은 축제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영천리 자율주민공동체 김경욱 대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차꽃축제는 한해 차농사를 마무리하며 차 농가들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매년 부족한 노동력에도 차농사를 포기 하지 않고 선조들이 물려준 농업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앞으로도 보성전통차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기후변화와 섬 주제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내일 개막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MICE 인증

### 7개국 패널 참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섬'이라는 주제로 7개국(영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한국)의 해양, 도서, 기후변화, 섬 주민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패널이 참여한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하든베이 호텔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 세계 450여 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최식을 시작으로 본행사 기초발표와 4개의 세션 프로그램이 각각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여수청년작가회에서 준비한 기후변화와 섬 관련 '회화 작품 전시회'와 여수향토요리전문가가 진행하는 16가지 섬 음식을 체험하는 '섬의 맛 이야기'로 꾸며진다. 여수=오상호 기자

## 광양MVP관광 개발 관련 관계부서 협업회의 개최



광양시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광양시관광협업센터 회의실에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광양MVP관광 개발 관계부서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 박영수 관광문화환경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관계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인사말, 광양MVP관광 개발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부서장들에게 협업사업 실행계획을 듣고 문제점과 대책, 연계와 실천방안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광양MVP관광은 must visitable place의 머리글자로 반드시 방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광양의 특화된 관광지들을 연계해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관광프로젝트이다. 시는 광양읍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구봉산권 등 4개 권역의 예술, 숲, 섬, 빛·레저 등 광양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담은 관광코스를 장기적 안목으로 발굴하고 상품화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 기자

## 6·25참전 학도병 故윤후근 선생 유물, 순천시에 기증

순천시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공을 세운 故윤후근(1931~1995) 선생께서 생전에 소중히 보관해오던 유물을 기증받고 최근 기증식을 개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기증식에서 故윤후근 선생의 유족인 윤보열남에게 감사장과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증유물은 총 34건 78점으로 우리 지역 학도병 참전자료와 개신교 희귀 도서, 순천교회 및 근대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이번 기증 유물을 순천지역 초기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동안 6·25라는

국난 앞에 우리지역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는데 호국을 위해 헌신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셨다"며, "이번 기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순천의 기독교 역사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후근 선생은 1931년 해룡면에서 출생하여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매산중학교 2학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헌서를 쓰고 학도병으로 참전을 결심하고 입대하였다. 이후 순천·여수 등지의 학도병 180여명과 함께 특공대로 편성되어 경남 하동군 화개전투, 경기 가평전투 등에



투입되어 북한군과 중공군의 남침을 저지하여 피난민들의 대피를 도운 공적을 남겼다. 순천=김승호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